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OST 사용기법 Use of the OST of 『Man from the Star』

김진선, 이승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Kim jin-seon, Lee Seung-yon  
Sangmyung Univ.

### 요약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여 종영한 드라마는 드라마 자체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파생된 상품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드라마에 삽입된 드라마 OST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새롭게 한류드라마의 한 획을 그은 『별에서 온 그대』에서 다양한 방법의 드라마 OST의 사용방법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가창곡보다 BGM의 사용이 많으면서, 삽입된 빈도수는 많고 시간은 짧았다. 두 번째로는 출연배우의 대표작을 활용한 장면연출과 작품에 나온 대표곡을 삽입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BGM 사용 형태를 유지하며 앞서 언급한 OST의 사용이 시청자들에게 드라마를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I. 서론

### 1.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2013년 12월 18일에 방영하여 2014년 2월 27일에 종영한 21부작의 미니시리즈 드라마이다. 2006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 드라마 수출 정체가었지만<sup>1)</sup>, 최근 한류드라마의 최신기수로 보고 있는 드라마이다<sup>2)</sup>.

## II. 본론

### 1.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OST 사용기법

9개의 가창곡과 21개의 BGM 트랙으로 발매되었으며, 가창곡의 '너의 모든 순간'이 드라마의 타이틀로 선정되었다.

#### 1.1 BGM을 활용한 사용형태

BGM의 사용은 인물의 감정과 연결되어 사용하였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창작된 음악만의 사용이 아닌 팝송을 사용하여 연출하였다. 예로 본 드라마의 첫 번째 발매곡 'My destiny'가 발매되었는데 삽입된 팝송의 곡도 'My destiny'를 사용함으로써 제목에 대한 공통점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물의 감정이 나타난 시점에만 음악이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감정에 따라서도 BGM의 사용을 빠르게 편입하여 이어갔다.

#### 1.2 가창곡을 활용한 사용형태

가창곡의 경우에도 인물들이 대사하는 장면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창곡 그대로의 OST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 부분만 제외한 instrument 버전의 사용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드라마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이어폰을 사용하여 노래를 듣는 장면에서는 대사와 기존곡의 가사를 일치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내재음악과 외재음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였다.

### 2. 출연배우에 따른 『별에서 온 그대』의 OST 사용기법

#### 2.1 패러디 형식

『별에서 온 그대』의 여자주인공 전지현의 대표작 <엽기적인 그녀>의 대표곡인 'I believe'를 드라마의 큰 방향에서 빈의적인 스토리로 각색한 부분에 활용하였다. 영화에서의 명장면 대사를 전지현 앞에서 보여줌으로서 시청자들에게는 또 다른 연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III. 결론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을 위해서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OST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드라마의 창작된 OST만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통으로 두지만,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드라마 외의 출연배우, 발매된 OST와의 같은 제목의 팝송을 비롯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드라마의 OST를 사용하는 기법에는 인물의

감정을 비롯한 창작곡의 OST 사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존재하는 요소를 음악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도 활용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1] 박장순 “한류의 생성 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 드라마의 교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2] 오세정 “한류 드라마의 흐름과 성공 요인 재고 -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를 대상으로”, 개신어문학회, pp.35-36 2016